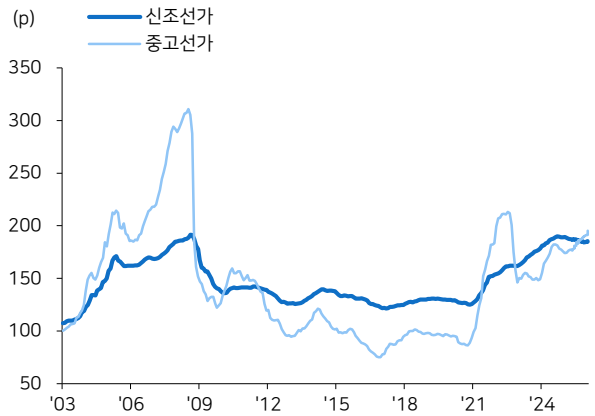
2026. 1. 29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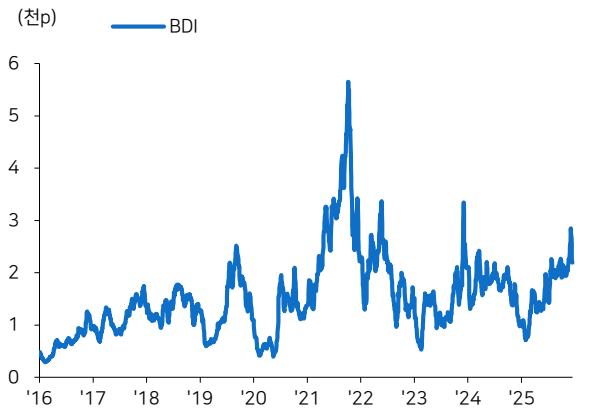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8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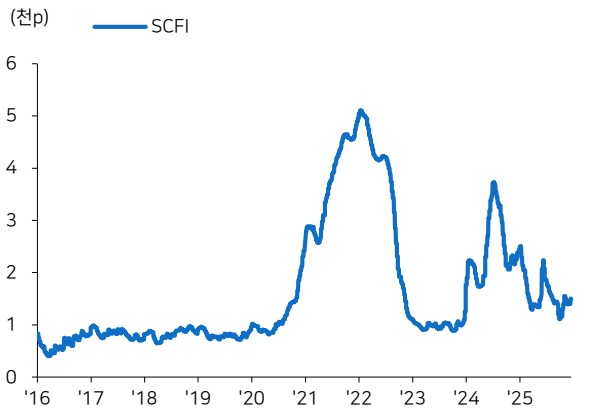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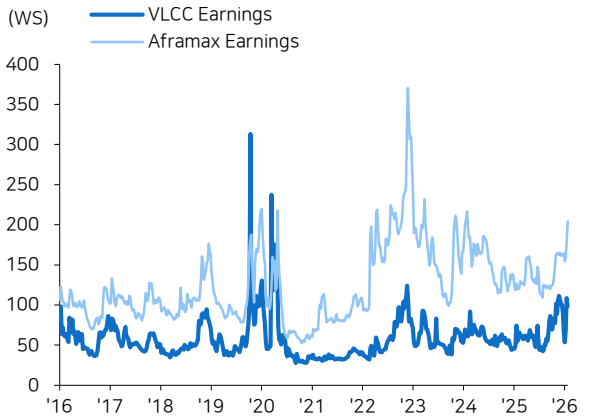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99.0p (+21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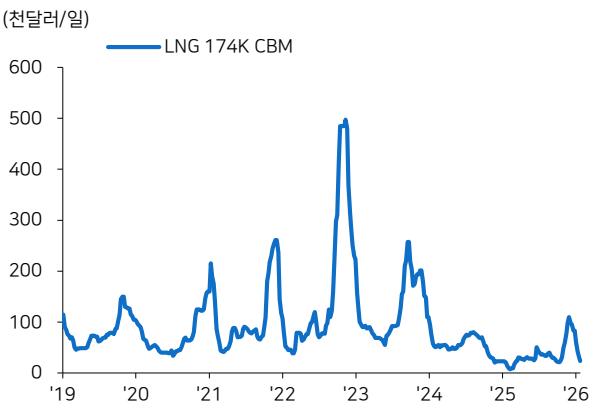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7.9p (-116.3p WoW)



VLCC Spot Rate 98.4WS (-10.1p WoW)



LNG Spot 운임 23.5천달러 (-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초대형 에탄운반선 2 척 수주...'4,300 억원' 규모 **더구루**

삼성중공업이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와 일본 해운사 Mitsui O.S.K. Lines의 합작법인으로부터 10만㎥급 초대형 에탄운반선 Very Large Ethane Carrier 2척을 약 4,300억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보도됨. 중국과 일본 조선소가 배제된 가운데 국내 조선 3사만 참여한 경쟁에서 삼성중공업이 납기 조건과 VLEC 건조 기술력, 극저온 화물창 설계 · 인도 실적을 앞세워 최종 선정됐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전 세계 VLEC 발주 물량의 약 65%를 수주했다고 전해짐. (https://buly.kr/AwgjiAD)

Eni eyes tantalising prospect of third FLNG vessel in Mozambique **Upstream**

Eni가 모잠비크 Coral South FLNG 성공 이후 Coral North FLNG에 대해 72억달러 FID를 내리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선체를 진수했으며, FLNG 단위 비용이 육상 액화 설비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보도됨. Coral North는 개발 기간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되고 액화 용량이 연간 360만톤으로 확대됐음에도 학습 효과를 통해 자본지출이 유지됐다고 알려짐. Eni는 모잠비크 추가 FLNG 가능성과 함께 Argentina LNG에서도 FLNG 2척 투입을 검토 중이며 2026년 중반 FID, 2030년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짐. (https://buly.kr/1GL3seP)

JP Morgan interests linked to LNG newbuilding duo at Samsung Heavy Industries **TradeWinds**

JP Morgan의 투자 이해관계가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 운반선 2척의 배후 발주 주체로 지목되며, 총 7,272억원 규모로 척당 약 2억5,200만달러에 계약돼 2029년 1월 말 인도 예정으로 알려짐. JP Morgan은 Orion Global 명의로 20척 이상 LNG 운반선을 용선해온 이력이 있고, 2024년에는 Venture Global LNG에 신조선 3척을 척당 2억7,000만달러에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도됨. 2029년 인도 슬롯 중심으로 LNG 신조 발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가는 약 2억5,000만달러 수준에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억톤 이상 LNG 공급 증가로 선복 부족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해짐. (https://buly.kr/DaQ6kTf)

삼성중공업, 12 년 만에 성과급 준다... "격세지감" **조선비즈**

삼성중공업이 저가 수주 물량 정리와 LNG 운반선 · F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12년 만에 초과이익성과급을 상여 기초액의 208%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성과급은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근속 요건을 충족한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지급되며, 2014년 이후 조선업 불황과 적자 지속, 경제적 부가가치 요건 미충족으로 중단됐던 제도가 실적 회복으로 재개됐다고 알려짐.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약 41조원 수준의 수주잔고를 확보한 가운데 선별 수주 전략이 정착되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DaQ6XRd)

빈센-삼성중공업-아모지, 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기반 파워팩 개발 **뉴스 1**

삼성중공업과 Amogy, Vinssen이 선박용 암모니아 크래커와 수소 연료전지를 결합한 Ammonia-to-Power 기반 무탄소 동력 시스템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IMO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선박 동력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해 연료전지에 공급함으로써 연소 과정 없이 전력을 생산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다고 알려짐. 고출력 확보와 함께 기존 선박용 엔진과 유사한 크기로 설계돼 대형 상선 적용과 선박 설계 변경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기대되며, 이를 통해 100% 무탄소 추진 선박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Csl4cD2)

한화오션, 제주도와 MRO 미래 기술 협력 추진 **뉴스 1**

한화오션이 대형 조선소가 없는 제주도와 선박 정비 · 수리 서비스 산업인 MRO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관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행보에 나섰다고 보도됨.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조선 · 해양산업 구조 변화와 MRO 시장 성장 전망, ㈜한화오션의 실제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주 지역 입지 활용 전략과 산업 연계 방안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진과 산 · 학 · 연 · 관 관계자들에 의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짐. 제주도가 해군 · 해경 함정과 국제 크루즈가 오가는 동북아 거점이라는 점에서 MRO 산업이 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관 공동 실행 전략 마련이 추진될 계획으로 전해짐. (https://buly.kr/9XMfyke)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